

공공기관, 가상화폐거래사이트 투자 논란

중기부·우분·국민연금 등 412억·8.7억 투자... 투기성 경고하며 규제 나선 금융 당국과 엇박자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우분), 국민연금 등 공공 기관들이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에 잇따라 수십억원씩 투자 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 기관이 출자한 펀드의 경우 위탁 운용사가 전적인 권한을 갖고 있어 해당 공공기관들은 자신들과 무관하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기관들의 자금 운용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해당 기관들에 따르면 중기부가 등록 또는 신고한 28개 펀드의 경우 가상화폐 거래사이트를 운영하는 두나무, 비티씨코리아닷컴, 코빗, 코인플러그, 코인원 등 기업에 약 412억 원을 투자했다는 사실이 지난 17일 밝혀졌다. 우분도 벤처캐피탈(VC) 3 곳을 통해 두나무와 비티씨코리아닷컴에 8억70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에서 600조원 이상의 금액을 굴리는 국민연금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연금기금이 출자한 2곳의 위탁 펀드는 두나무, 코인플러그, 코빗, 빗썸 등 4곳에 약 20억 원을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세 기관은 모두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에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자했다.

이는 최근 정부에서 가상화폐의 투기적 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과는 상충된다.

벤처캐피탈(VC) 등을 통한 간접투자라 하더라도 공적 자금이 흘러 들어간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가상화폐는 자금수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자금세탁,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화폐 취급업소에 대한 해킹 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13일 미성년자나 외국인들의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데 이어 같은달 28일 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가상화폐와 신규 발급을 중단시킨 바 있다.

오는 30일부터는 기존 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금지하고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 규제 기조에 따라 가

상화폐 거래 주의보'가 공사 구분 없이 곳곳에서 이뤄졌다.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 마련에 참여한 금융감독원 직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가상화폐에 투자한 뒤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나자 청와대는 직원들에게 거래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등 대형 민간 증권사들도 최근 가상화폐 투자를 자제하라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중기부 장관마저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지만 우분이나 국민연금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분 측은 운용사의 수익성만을 순수하게 고려해 선정했으며 투자 활동에는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연금 역시 '재무적 투자자'로서 위탁운용사가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는 투자 의사 결정과 회수 등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운용사들은 과거에 선정됐으며 선정된 이후에는 별도로 운용 상황을 살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 기관들이 운용사를 선정한 시점과 운용사가 투자를 결정한 시점 간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를 관리·감독할 절차가 미비하다는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운용사가 선정될 당시 기준

으로 보면 불법 행위를 했거나 절차를 어긴 것은 없다"며 "사후적으로 조치하기 위해선 규정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그는 "혁신성, 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투자를 결정하는 것에 관해 규정하려면 윤리적 가치관이나 비재무적 판단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라며 "그런 부분을 세세하게 정하긴 어려울 수 있기에 큰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 역시 "국민연금이 직접 의사결정 해서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문제 될 것은 없다"면서도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 투자했는지, 펀드 운용 규정에 맞게 투자한 건지 따져볼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이르면 올해 말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인다는 목적으로 스튜어디스 코드(기관투자가의 의견결정 행사 지침)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고려하면 더욱 논란의 소지가 크다. 지분을 보유한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점검한다며 사회적 책임 투자를 강조하고 나선 국민연금이 정작 대체투자 부문에선 그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도 나온다. /뉴스



장수농협 정기총회 성황리 열리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이 지난 26일 장수농협 2층 회의실에서 제47기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열었다. 장수농협 대의원과 임직원이 함께 모여 지난 1년간 장수농협의 성과를 최종 승인하는 이 자리에는 농협중앙회 전북지역본부 유재도본부장과 박경준 장수군지부장을 비롯한 유기홍 장수군 군의회의장, 양성빈 전라북도 도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등 200여명이 함께하여 자리를 빛냈다.

2017년 장수농협은 총 자산 3,500여억원의 규모로 170여여명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여 건전한 경영기반을 구축하였고, 농업인 조합원 대상 영농자재 지원비 6억8,000여만 원을 지급했다.

또, 12여여명의 건전결산을 달성한 결과 출자배당과 이공배당을 비롯

한 하나로마트이용, 면세유이용, 사료이용에 대한 배당 등 12여여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김용준 조합장은 "제47기 정기총회를 맞아 장수농협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공로로 표창장을 수상한 수상자 4명에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지난 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계속됐으나 12여여원의 건전결산을 하게 된 것은 장수농협을 이용하여 주신 조합원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이다"며 "장수농협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극복을 위해 각종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인 농산물 유통 등 경제 사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 태어나 장수농협발전에 초석이 되도록 이

정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호남권역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개소식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김광재)은 1월 26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서 중·장년과 청년의 매칭창업을 지원하는 호남권역 세대융합 창업캠퍼스의 개소식을 열었다.

개소식은 호남권역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통해 발굴된 (예비)창업팀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고 성공적인 기술창업 도전을지지를 결의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선정된 창업팀은 총 사업비의 70%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시제품 개발비, 마케팅 등의 사업비와 창업공간이 무상 제공된다.

또한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초기창업 숙단계를 집중지원받게 되며, 우수 창업팀에게는 후속투자과 글로벌 진출지원, 최대 3천만원의 후속 창업자금이 지원 된다.

동 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과 구조조정 등으로 일자리를 잃은 숙련 퇴직인력들과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포함한 전국 6개 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선정 되어 운

영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세대융합 창업캠퍼스'를 통해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융합형 기술창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호남권역 개소식에서는 전북초·중·고등학교를 연계한 창업캠퍼스가 창업 첫걸음기업들의 성장사다리 역할을 하고, 중장년의 경험과 노하우가 청년기업의 혁신에 마중물 역할을 하여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2017년 세대융합 창업캠퍼스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또는 K-스타트업 홈페이지(www.k-startu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민근 기자

남부시장 하늘정원 청년 아이디어로 '새단장'

2월 9일까지... 하늘정원 다시 그리기 공모 워크숍

전주남부시장의 문화공간으로 그간 많은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온 청년몰 하늘정원이 2월 9일까지 '하늘정원 다시 그리기 공모 워크숍' 개최를 시작으로 새 단장을 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기존 하늘정원을 글로벌로 재탄생시키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우수한 결과물을 실제 설계에 반영하는 시민참여형

공공디자인 프로젝트이다. 글로벌파크는 그간 전주남부시장이 전국 최초의 청년몰과 주말 야시장의 성공적 운영으로 연간 300여만명이 방문하는 시장임에도 좁은 골목 등 기존 시장의 특성으로 고객 휴게공간 부족이 지속 제기되어 온 가운데,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몰 및 야시장과 연계성이 좋은 하늘정원을 적극 활용한 고객 휴게시

설 및 문화공간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또한, 향후 글로벌파크는 기존 상인들아리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체험투어, 외국어 시장 안내, 문화 공연 및 이벤트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이 펼쳐지게 될 예정이다.

총 5회로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은 지역내 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20여명이 참여하여 탐방로 공공디자인, 미술 분야의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글로벌파크에 대해 구상하게 되며, 최종 선발된 최우수팀은 전

북중소벤처기업청장상과 은누리상 품권 100만 원을 수상하며, 결과물은 추후 글로벌파크 조성 설계에도 반영된다.

전주남부시장상인회 하현수 회장은 "한국의 전통시장 중에서 가장 청년들의 역할과 문화의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곳은 전주남부시장이 으뜸이다"며 "이번 글로벌파크 조성에도 전주남부시장을 아끼는 청년들의 생각이 적극 반영되어 앞으로 더욱 활기 넘치는 공간으로 탈바꿈 할 것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민근 기자

전주매일 www.jjmaeil.com

전라북도 전북농협

자연의 건강한 미소

에담채

에담채는 전라북도와 전북농협이 보증하는 농산물 대표브랜드 입니다.

2012~2015년 산지유통종합대상 수상(4년연속)
2014~2015년 농식품파워브랜드 장관상 수상(2년연속)